

# 슬로시티 운동 가치·비전 공유

### 전주시·한국슬로시티본부, 제5회 전주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 온·오프라인 개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급한 일에서 한발 물러서는 방식으로 인생을 관리하는 슬로시티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와 한국슬로시티본부(이사장 손대현)는 4일 팔복예술공장 카페 세니에서 세계 슬로시티 전문가 및 슬로어워드 국내·외 수상자들과 함께 '제5회 전주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를 개최했다.

'세계가 묻고 전주가 답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탈리아, 독일, 터키 등 세계 슬로시티 전문가들은 물론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등 국의 수상자들이 화상 연결 방식으로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슬로니스(slowness)와 슬로비즈니스(slow business)'를 주제로 열린 세계슬로포럼의 경우 토크 쇼이더 터키 이즈미르 시장의 기초연설을 시작으로 독일의 권위 있는 시간관리 전문가이자 '슬로비즈니스의 모자'의 저자인 로타르 자이베르트, 리타 게디니 이탈리아 볼로냐 협동조합연합회장의 발제 등이 이어졌다.

토크 쇼이더 터키 이즈미르 시장은 기초연설을 통해 대도시에서 슬로시티 철학을 끼워넣기 위한 방법으로 △이동성 및 걷기 적합성 높이기 △건강하고 안전한 동네 만들기 △시민의 참여로 공공 공간 개선하기 등을 제시했다.

특히 '급할수록 천천히'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로타르 자이베르트 씨는



전주시와 한국슬로시티본부는 4일 팔복예술공장 카페 세니에서 세계 슬로시티 전문가 및 슬로어워드 국내·외 수상자들과 함께 '제5회 전주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를 개최했다.

느리게 속도를 늦추고 싶은 방법으로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 계획하기 △명상 통해 휴식 주기 △산책하기 △퇴근 후 시계 벗기 등을 제안했다. 이어 "시간은 관리할 수 없지만 인생이나 시간은 다루는 방법은 관리할 수 있다"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면서, 급하고 세세한 일에서 한발 물러서는 방식으로 인생을 관리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리타 게디니 이탈리아 볼로냐 협동조합연합회장은 "협동조합 정신과 슬로시티 간의 접점이 있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 촉진, 공동이익과 공동선을 위한 파트너십 촉진 등이 일맥상통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발제에 이어 피에르 조르지오 울리베티 국제슬로시티연맹 사무총장과 안성민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연구원,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이홍락 전주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등이 슬로시티 가치 확산을 위한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포럼에 앞서 펼쳐진 슬로어워드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서온 유해숙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와 토종씨앗 수집·보급·연구·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변현단 토종씨드림 대표에 대한 시상식과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국외부문 수상자에게는 에너지 중립적인 삶을 위한 정책을 펼쳐온 안 세튼 네덜란드 보르커르 오도른 시장과 이탈리아 전통음식인 '쿨라텔로(culiatello)'와 연계한 환경 정책에 힘써온 마시모 스피겔올리 이탈리아 지벨로 시장이 선정돼 화상을 통해 각각의 사례를 소개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 도심형 슬로시티 전주의 국제적인 위상을 재정립하고 슬로시티 철학을 기반으로 국내·외 파트너십과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0년 전주한옥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최초 도심형 슬로시티로 지정받은 시는 지난 2016년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해 재인증을 받았다. 시는 지난 1월 3번째 인증을 받으면서 오는 2025년까지 슬로시티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시는 이 과정에서 총 5회에 걸쳐 전주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를 개최해 국내·외 홍보 및 네트워크를 강화했으며 '오손도손' 슬로시티 전주학교를 운영해 지역 주민 및 공동체의 슬로시티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주력해왔다. 또 달팽이와 함께하는 슬로길을 선정해 슬로콘텐츠를 구축하는 데에도 힘써왔다.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지난 2019년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오렌지달팽이상(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서재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 세계슬로포럼은 슬로시티 운동의 정의와 가치,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느림과 행복이라는 슬로시티 철학을 실천함으로써 도심형 슬로시티의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잠복결핵감염자 관리 '최우수'

### 전주시보건소, 질병관리청 주관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서 수상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을 끌어올리는 등 감염병 예방을 가장 잘한 기관으로 평가됐다.

전주시보건소는 최근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2021년 민간·공공협력 국가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잠복결핵감염자 관리 부문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잠복결핵감염은 몸속에 들어온 소수의 결핵균이 증식을 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이 없어 주위에 전파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전주시보건소는 적절한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잠복결핵감염으로 인한 결핵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전화상담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해 치료를 권고하고, 교육에 나서서 등 찾아가는 결핵관리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전주시보건소는 올해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을 94%까지 달성, 성과를 인정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결핵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호흡기로 감염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주변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질병"이라며 "결핵예방을 위해서는 초기발견과 규칙적인 치료가 관건인 만큼 2주 이상 기침, 가래, 피로감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결핵 검진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보건소, 보건의료정책간담회

전주시가 내년부터 강화될 전주시보건소의 전반적인 운영방향과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 의료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췄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4일(구)덕진에방접종센터(덕진구 우이길 20)에서 정경호 전주시사회장과 권근상·이주형 전주시 보건의료자문관(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현정 전주시 정책연구원 등 공공의료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부터 덕진권역에

보건소가 추가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보다 강화될 전주시보건소 운영방향과 업무추진 체계를 재정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보건소는 특히 이 자리에서 다른 지자체들과 차별화되는 전주시보건소만의 선도·특화사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전주시의사회와 전주시한의사회, 전주시치과 의사회 등은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6개 대학과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 모색

전주시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발맞춰 대학 내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4일 전북대학교·전주대학교·전주교육대학교·예수대학교·전주기전대학교·전주비전대학교 등 6개 대학 방역 담당자와 총학생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단계적 일상회복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위드(with) 코로나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대학생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과 외국인 유학생 방역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 대학생들의 일상 안전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대학생들의 활동 반경이 넓은 만큼 대학의 선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며, 마스크 쓰기, 개인

위생수칙 지키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학생과 대학이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대학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과 연계한 대학의 소규모 축제를 여는 방안과 그간 부족했던 청년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다.

대학 측 관계자는 "대학의 일상회복을 위해 각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아직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백신 접종률 제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청년들의 모범적인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전주시와 대학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과의 소통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완산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개선 집중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병수)가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완산구는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보장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11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계도와 홍보를 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이 기간 중 평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사항이 담긴 포스터와 전단지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포스터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근 벽면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방송 협조 및 전단지 비치 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 개선에 힘

쓸 계획이다. 구는 또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와 함께 기관 등에 방문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2면 이상 이중주차해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 방해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표지를 위조해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장애인들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